

암바보의 혼인

미메시스: 보편을 수용함으로써 확장하는 자아

사회학과 정승은 (2020-16986)

1. 공연의 내용

피그미는 수렵과 채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간다. 그러한 생계 방식은 “숲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뿌리치고 굶어죽으면 되겠어요?”¹⁾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피그미의 숲 사랑에서 비롯된 동시에 숲 사랑을 더욱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피그미의 생계 방식과 숲 사랑 정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들의 ‘**공동생활**’이다. 피그미는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사는데, 이는 수렵과 채집이 노동 집약적인 활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생활은 피그미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들 정체성의 핵심인 숲 사랑 정신을 이어나가게 하며, 바로 그 점에서 피그미 부족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들 삶의 정수인 것이다. 피그미 사회에서 공동생활의 중요성은 혼자 따로 그물을 설치한 세푸가 공동체에서 공공연하게 배제되는 것에서 드러난다. 단독 사냥을 시도하기 전까지 세푸는 공동체에서 환영받지는 못했더라도 내놓고 배제되지는 않았다. 세푸의 단독 사냥은 세푸를 ‘무리에서 죽’²⁾게 할 정도로 괴롭히고, 그러한 배제를 통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다. 피그미 사회에서 공동생활의 중요성은 개인이 자유롭기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규범을 따르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피그미의 **결혼 문화**는 노동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피그미는 누이교환 문화를 갖고 있는데, 집안의 여성이 결혼해 다른 집안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여성 노동력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피그미 사회에서 결혼은 가족의 형성과 자손 출산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세대 내뿐만 아니라 세대 간 노동력 유지와 부족 계승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통과의례이자 모든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과업이었던 셈이다.

이토록 중요한 결혼을 거부하며 자신을 규제하는 힘에 맞서려 했다는 점에서 암바보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턴볼은 암바보의 변화를 제시하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서술하는데에 그쳤다. 이 공연은 암바보의 미메시스 과정을 **암바보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재모방할 것이다.

턴볼의 서술로부터 암바보의 심리 변화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요인들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암바보가 결혼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

‘켄게가 말리아모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를 동원할 작정이라는 점을 안 이상 절대 그 [말리아모의 오빠인 타푸를 좋아하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³⁾라는 턴볼의 서술에서 암바보는 오빠 결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암바보가 누이교환 결혼

1) 콜린 M. 턴볼, <<숲 사람들>>, 황소자리, 2007, p.143.

2) *Ibid.* p.151.

3) *Ibid.* p.263.

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결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암바보의 입장에서는 규범이 존재하는 맥락을 모른 채 규범을 따를 것을 강요받는 것이므로 그 상황이 매우 부당하며 폭력적이라고 느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그 (적어도 암바보의 입장에서) 폭력적인 상황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행위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상황을 맞서 싸워나가야 할 어떤 것으로 상정하고 그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진정성의 태도가 드러난다. 암바보는 전형적 삶은 지양해야 하는 것, 그에 저항하는 삶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가질 것이다.

(2) 암바보에 대한 밤부터 피그미의 시각

‘아이를 열두 명이라도 낳아 기를 짓이 충분한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버팔로처럼 튼튼한데 왜 제대로 일하지 않느냐’⁴⁾, ‘타푸를 좋아하면서도 게을러서 결혼하지 않는다’⁵⁾, ‘아들[켄게]이 아내를 맞으려 사냥 그물을 만들어놓았는데 이 쓸모없는 누이[암바보]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⁶⁾ 등 턴볼의 서술에서는 암바보가 결혼을 거부하는 것을 노동력의 (재)생산에 충실히 임하려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받아들이는 피그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암바보에 대해 켄게와 바도린지는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다른 피그미들은 그럴 만 하다거나 더 세계 때려야 한다며 암바보에 대한 문화적 압박에 합세한다.

(3) 암바보가 마음을 바꾼 이유

‘자기는 완전히 지쳐 놓고만 싶다며 왜 모두들 자기를 괴롭히느냐고 외쳤다’, ‘모두들 자기를 죽일 것처럼 덤벼든다며 투덜거리더니 타푸든 누구든 상관없이 시집을 가버리겠다고 대답했다’⁷⁾라는 턴볼의 서술에서 암바보는 **체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규범을 학습한 것이다. 따라서 암바보의 체념은 단순히 자아의 포기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구조를 수용함으로써 확장된 자아에 대한 감각이다.

암바보가 결혼을 선택한 이후에도 타푸의 아저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회색 재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규범에서 다소 벗어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는 암바보가 결혼을 선택한 것이 단순한 자아의 포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드러낸다. 암바보는 미메시스를 거치며 독립된 개인으로 자신을 형성했으며, 모방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개인들이 모두 획일화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인간은 보편을 수용하면서 개별자가 된다.

암바보의 심리 변화를 모방함으로써 이 공연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 (1) 피그미 삶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공동생활’이 피그미 삶에 다층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드러낼 수 있다.
 - ① 공동생활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문화적 강제력을 보일 수 있다.
 - ② 암바보가 결혼을 강제 받고 그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누이교환 결혼문화의 맥락이 노동력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공동생활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 (2) 피그미 사회가 어떤 논리·방식으로 공동체적 삶을 거부하는 개인을 공동체에 결속시키는 지, 피그미 개인들은 어떤 이유로 모방을 선택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이는 피그미 개

4) *Ibid.* p.264.

5) *Ibid.* p.265.

6) *Ibid.* p.266.

7) *Ibid.* p.267.

인이 사회의 일부로 사회화되고 부족을 이루게 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 (3) 암바보의 심리 변화는 미메시스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끌어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세상에 내던져진 채 이미 만들어진 세상의 작동 방식에 순응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전형화된 세상살이를 모방(mimesis)하는 것은 때때로 무기력과 회의를 느끼게 한다. 암바보는 이미 공고한 채로 자신에게 강제되는 피그미 문화에 저항하며 체념하는 인물이다. 비록 다른 문화가 작동하는 사회에 살고 있더라도 사회화의 과정에서 순탄하지 않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암바보에 공감하며, 공연의 내용과 실제 삶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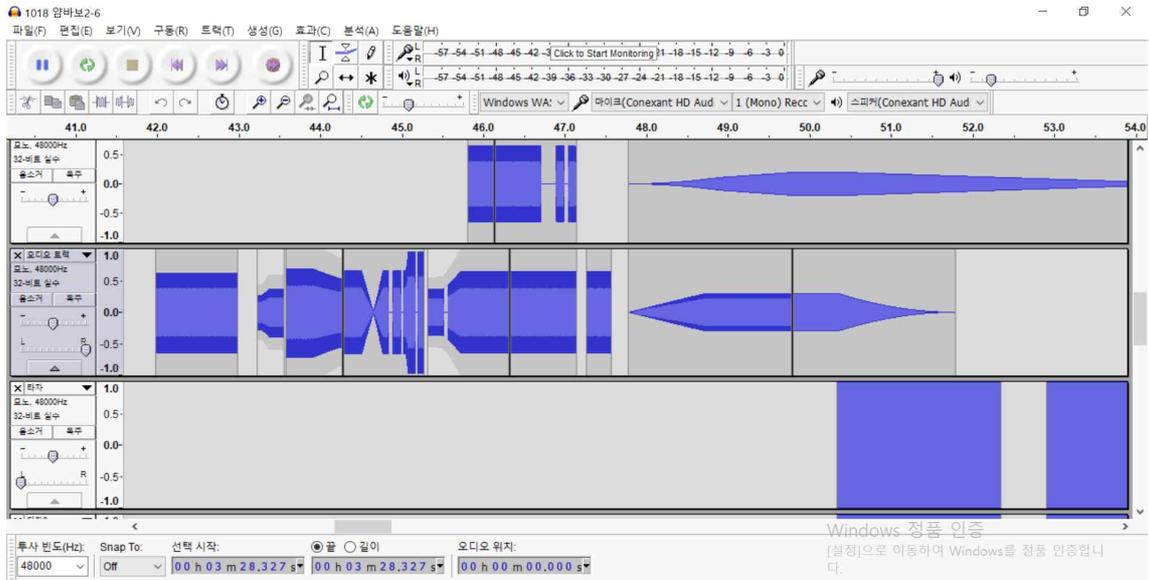
2. 공연의 형식

(1) 비음계가 포함된 배경음악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음계'를 포함한 배경음악을 제작했다.

- ① 1. (1)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암바보의 이분법적 인식을 음계/비음계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형상화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형적인 문화와 암바보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음계로 상징해 중간중간에 삽입하고, 그를 거부하고자 하는 암바보는 비음계로 표현한다.
- ② 몰리모 노래를 들었을 때 특징적이라고 느꼈던 것은 주로 비음계로 노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와 이 수업의 청관중들(이하 '우리'라고 칭함)은 훈련된 사람과 다듬어진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계를 기준으로 소리를 인식하는데, 몰리모는 상하수도관이 만들어내는 명명하기도 따라 하기도 힘든 소리들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가(그리고 어쩌면 턴볼도) 몰리모로부터 신비로움을 느낀 이유들 중 하나일 것이다. 서구 문명의 음계에 익숙해져 그 이외의 음을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와 달리, 피그미들은 '비음계'라고 굳이 이름 붙여 지곤 하는 소리를 자유롭게 내고 향유한다. 비록 배경음악에서 비음계는 결혼문화에 저항하는 암바보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테지만, 암바보의 저항이 극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청관중들은 극을 통해 피그미의 비음계와 그것이 뜻하는 문화적 맥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비음계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수업에서 배우기 시작한 Audacity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연에 쓰일 배경음악을 직접 만들었다.



실제 작업 화면

(2) 몸짓

인간이 도구를 매개하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와 몸짓이다. 그중 몸짓은, 세상을 이미 구획해놓은 것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다. 서툰 몸짓이겠지만, 논리를 통해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 경험의 차원을 전할 수 있을 바란다.

3. 구체적 구성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1) 즐거운 암바보

소리	몸짓
(4박) 비트로 시작 비음계와 음계가 섞인 암바보의 소리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듯 즐거운 표정으로 춤을 추는 암바보. 점프를 하고 동그란 선으로 춤을 춘다.

(2) 켄게는 말리아모와 결혼하기 위해 말리아모의 형제인 타푸와 암바보를 혼인시키려 한다. 암바보는 누이교환의 수단으로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려 하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로 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소리	몸짓
음계로 된 타인의 소리(암바보의 박자를 끊으며 큰 소리로 끼어들)	화들짝 놀라 움츠리기도 하고, 화내며 발로 차는 동작을 하기도 하고, 상관없다는 듯 자

<p>켄게를 상징하는 음계와 암바보를 상징하는 소리가 뒤엎힘</p> <p>점점 약해지는 암바보의 소리</p>	<p>신의 춤을 이어나가보려 하지만 왜인지 확신에 없는 듯 동작이 자꾸 작아진다.</p> <p>자신을 방어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보호하는 동작, 반격해보려 하지만 좌절당하는 동작. 공격을 받아 뒤로 밀려난다.</p>
<p>높은 음으로 호소하는 듯한 비음계, 간절함을 빠른 리듬으로 표현</p>	<p>엄마(바도린지)에게 도피, 희망과 간절함에 찬 눈빛으로 엄마를 붙잡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해본다. 하지만 엄마는 암바보에게 욕박지르고 뺨을 맞은 암바보는 털썩 주저앉는다.</p>
<p>잔잔하면서도 날카로운 핑음</p> <p>(“결혼해”를 음계에 맞춰 녹음해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소리)</p>	<p>무기력에 빠져 웅크리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암바보. 손을 모아 짹짹 빌고 다리를 잡고 매달린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내 탈진하여 쓰러진다.</p> <p>(암전)</p>

(3) 탈진하여 쓰러진 암바보는 꿈속에서 타푸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어떤 삶을 살게 될 지를 상상한다. 그 과정을 통해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수궁하고 납득한다.

소리	몸짓
<p>결혼식 노래</p> <p>쟁그랑 소리: 'Lemon Tree (Fool's Garden)'의 스네어 소리</p>	<p>(자신이 타푸와 결혼하지 않으면 켄게도 말리아모와 결혼하지 못한다.)</p> <p>오른손을 뺀어(상상의 나래를 펼침) 그 위로 왼손의 두 손가락(켄게와 말리아모)이 신나게 지나간다.</p> <p>두 손가락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원치 않는 일을 벌여 버린 듯 놀란 표정. 죄책감. 고개를 흔들다.</p>
<p>따뜻한 분위기의 노래</p> <p>쟁그랑 소리</p>	<p>(자신이 타푸와 결혼하지 않으면 타푸의 집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 앞으로 자신도 결혼하기 힘들다.)</p> <p>왼손을 뺀어(상상의 나래를 펼침) 그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간다(상상의 나래 속 암바보). 바닥에서 무언가(나뭇가지)를 주섬주섬 주워 집을 만드는 듯하다.</p> <p>집이 무너진다. 망연자실한 표정, 놀라서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며 오른쪽으로 물러난다.</p> <p>(암전)</p>
<p>Une barque sur l'océan(Andre Laplante) 중 일부</p> <p>비음계가 점점 음계와 가까워지며 화음.</p>	<p>잠에서 울면서 깨어나는 암바보. 흐느끼다가 결심한 듯 눈물을 문질러 닦고 일어선다.</p> <p>누이교환으로서의 결혼문화를 이해하고 결</p>

	<p>혼을 선택하는 암바보.</p> <p>강한 선으로 왼쪽의 누군가와 손을 잡으려 는 듯 왼손을 내민다. 입을 가리던 오른손을 살짝 아래로 내린다.</p> <p>왼손으로 잡은 손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후 오른손으로 오 른쪽의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p> <p>(누이교환의 맥락인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것 을 선택하였음)</p>
--	--

(4)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암바보. 보편을 거쳐 개별자가 된 암바보.

소리	몸짓
음계와 비음계가 연속되어 나는 소리	타푸의 아저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회 색 재를 뒤집어쓴다. (깃발을 뒤집어쓴다)
‘청춘 (DAY)(우효)’ 중 일부	자신만의 소리, 음계를 갖게 된 암바보. 피 그미의 일원으로서 열매를 따고, 집을 짓기 위해 잎을 모으고 사냥을 한다.

4. 참고 자료

* 중간에 삽입된 음악 (삽입된 순서대로)

Fool's Garden, <Lemon Tree>, <<High Time>>, Sony Music, 2009.

Andre Laplante, <Une barque sur l'océan (from Miroirs)>, <<Call Me By Your Name
(Original Motion Picture Soundtrack)>>, Sony Music, 2017.

우효, <청춘 (DAY)>, <<청춘>>, (주) 카카오 M, 2016.

턴불, 콜린, <<숲 사람들>>, 이상원 역, 황소자리, 2007.

Pygmées, <Molimo (No.1)>, 2015.2.25.,

<https://www.youtube.com/watch?v=RiF_CKQvZo>, 2020.10.19. [몰리모- 배경음악에
피그미 특유의 느낌을 더하기 위해 몰리모 노래를 듣고 참고하였습니다.]